

##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인

김은석\*

### 국문요약

제주인이란 누구인가? 그것은 그들 역사적 경험만큼이나 다양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제주인에 대한 사례연구가 꾸준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제주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제주인이라는 범주의 역사적 구성과 변화에 대한 탐색이다. 제주인은 그 자체가 역사적 형성물이다. 그것이 역사적 형성물인 한 꾸준히 변모하게 마련이며,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적인 형성물인 한 그렇게 쉽게 바뀌기도 어려운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적인 선택이나 한 시대의 호불호와는 달리 오랜 역사 속에서 집합적으로 구성된 문화적인 정체성은 상당히 견고한 생명력과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관하여 제주사회에서의 제주인에 대한 정체성이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제어: 제주인, 제주섬, 정체성, 탐라

---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 I. 머리말

제주의 미래를 바꾼다는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제주 전통문화의 위기, 제주인의 정체성 상실 등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심각하게 등장한 것은 주민 각자가 느끼는 세계화, 개방화 등으로 인한 개인의 황폐화이다. 이처럼 엄습해 오는 개인 황폐화의 공간에서는 '서로 관여되고 있음'(loi de participation)이 실현되는 사회관계, 즉 제주인, 제주문화, 제주인 공동체 등의 개념은 하나의 사회구성의 담보물로서 자연히 주목을 끌게 된다.<sup>1)</sup>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제주문화, 제주인과 관련된 논의는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를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이해야말로 한 사회의 문화를 가늠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인'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서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 우선 제주인이란 한편으로 혈연적 유사성, 지리적 공통성, 언어·역사·관습상의 공유성을 핵으로 장기지속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또 한편으로 역사적인 가감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루어진 매우 추상적인 실체이다 (Kamenka, 1976: 6).

지금까지 제주인에 대한 논의는 주로 언어, 문화, 혈통 등 제주인 구성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치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제주인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나름의 의의를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고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보루로서 전통이 등장하는 이념적 배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제주인'에 대한 접근으로는 오히려 한 시대와 다른 시대 사이에

---

1) 이런 의미에서 제주인, 제주문화, 제주인 공동체 등은 일종의 이념소(ideologémés)라 할 수 있다.

발생하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과의 관계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 글에서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인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주인이란 제주역사의 기원과 더불어 존속해 온 변하지 않는 초역사적인 상수가 아니라 구체적 역사조건들을 기반으로 특정 시기에 출현한 역사적 변수로 파악하고자 할 때 제주인은 영구불변의 인간본성인 군집성의 원초적 형태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특정한 조건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그렇다면 제주인은 어떠한 조건들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또 그것이 수행하는 역사적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제주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에 대한 자발적 귀속의지를 유발시킨 사건들은 무엇인가 등이 제주인을 설명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제주인의 주관적 집단의지를 넘어서는 사회적 실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즉 제주인, 제주인 공동체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것의 역사성에 주목하는 것이다.<sup>2)</sup>

## II.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제주인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놓고 볼 때 제주섬에 사람이 등장한 것은 구석기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한경면 고산리 유적을 대

---

2) 이 글은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지평을 넓히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물론 제주역사에 일천한 필자로서는 이 주제가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논지의 전개상 필자는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경우에 따라서는 아전인수격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내용 또한 개설적 수준에 머무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감히 내놓는 것은 제주사회의 현실에 고민하는 선학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함께 제주사회의 미래를 모색하고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로 하는 신석기시대와 대정읍 상모리 유적을 축으로 하는 무문토기시대(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주민이동과 문화담당 주체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이청규, 1995: 145).

그러나 아직 이들의 경우 제주섬이라는 지리적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생활방식을 통해 형성된 동질의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출토된 이 시대 유물의 경우 지역간 차이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당시 제주섬은 단순한 지리적 영역으로서의 거주지 이상의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이청규, 1995: 164).

그러나 기원 전후에 이르면 양상은 달라진다. 이 무렵 지역간 정치적 지속성과 문화적 공통성이 두터워지면서 제주섬 주민 형성의 단초가 마련된다. 기원 후 제주섬을 대표하는 괘지식토기와 고인돌 문화의 확산이 그것이다. 상모리식 무문토기 분포지역이 1990년대 현재 불과 10개 미만인 것과는 달리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괘지식토기문화 단계에 이르면 그 분포지역은 수십 개로 늘어나고 괘지리나 광령리 등 단위 유적의 직경이 수백 미터 이상의 큰 규모도 출현한다(이청규, 1995: 200). 이 같은 현상은 족장 또는 그에 버금가는 지배 엘리트의 출현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제주섬에 비로소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과 그 안정의 요체가 되는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인근 집단과의 전쟁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발적 통합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괘지식토기문화 단계에 이르러 제주섬은 사회적 통합에 의해 지역간 문화의 차이가 극복되고, 그 가운데 비로소 주민간 유대감(psychological coalescence)이 마련되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sup>3)</sup>

---

3) 이들이 하나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는 혈연, 풍습, 언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들이 남긴 물질문화에서

## 1. 탐라주민의 형성

근대적 통신기술과 교통이 발달하기 전 인간의 활동 범위는 기껏해야 보통 성인이 하루 걸을 수 있는 100리 정도이다. 따라서 과거로 올라갈수록 우리의 행동과 사고는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 각 개인에게는 촌락 자체가 자급자족적인 단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관습과 법, 신앙과 축제 등은 각 구성원의 행위에 일정한 동질성을 부여하며, 그것이 곧 그들 유대감의 기초가 된다(Kamenka, 1976: 4). 특히 제주도처럼 지리적 고립정도가 높은 경우 사회관계는 섬이라는 제한된 범위에 한정되고,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갖춤으로써 내외집단에 대한 보다 강한 구별의식이 유대감 형성의 토대가 된다(이청규, 1995: 276).

여기서 제주섬 주민들의 유대감 형성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 우리는 먼저 『고려사지리지』에 나와 있는 3신인집단과 3처자집단이라는 정치적 엘리트그룹의 등장에 따른 탐라국 성립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 무렵 제주섬에는 여러 이주민 집단이 토착 집단과 어우러져 뿌리를 내리고 비로소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주민들 사이의 유대감이 탐라사회 전반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탐라국의 출현은 그 중심 부족이 인근 부족을 포섭, 통합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지 잠재되어 있던 객관적 동질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라국의 성립은 촌락 단위로 흩어져있던 주민 집단이 역사의 발전에 따라 더 큰 단위인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탐라국의 경우 정치공동체

---

추정할 수밖에 없다.

를 구성하는 정치적 과정과 그에 걸맞는 정체성을 확정하는 문화적 과정 간에 일정한 시차나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탐라국 주민이란 출발부터 이중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의례 및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을 뜻하는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여기서 혈연공동체(Blutgemeinschaft)의 의미가 부각된다. 한 부족, 또는 한 사회 집단이 같은 혈연적 근친성을 가졌다는 표상은 사실 원시시대의 사회상이다. 개인의 몸과 집단체의 유사성을 주술적으로 역설하고 집단 소속원 모두에 같은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 하면서 사회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술적 행위들을 통해 집단은 종족의 원초적 정체성을 넘어서 그 종족이나 집단 내부에서의 적극적인 연대의식이 뒷받침될 때 집단적 응집력인 주민의 정체성이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탐라사회가 외부로부터 비로소 하나의 정치적, 문화적 단위로 인식되어 '주호' 또는 '탐라' 등으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삼자에 의해 하나의 종족이 사회집단으로 분류되고 명명되는 일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객관적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든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3세기 경 즉 『삼국지』 위서 동이전 마한조의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髮頭如鮮卑 …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韓中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지』의 시각은 제주섬 주민들이 체질적으로 왜소하고,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한반도 주변사회와는 다른

그들만의 언어를 갖고 있는 등 제주섬을 문화적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미 주변 사회에서 제주섬을 주호 집단으로 명명할 만큼 인종적 유사성, 지리적 공통성, 언어·관습상의 공유성을 인지한 증거이며, 그 결과 그들에 대한 종족적 분류, 즉 동아시아 여러 종족 가운데 동이족, 그 중에서도 마한에, 그러나 마한과는 또 다른 집단으로 분류하는 인식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3세기경 제삼자에 의한 주호 인식이 곧 제주섬 주민간의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음을 가리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제주섬 주민들 자신이 외부와의 뚜렷한 구별의식을 갖고 스스로 자신의 사회의 명칭을 거론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공동 생활양식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을 지닌 인간집단은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또한 언제인가? 그것은 대략 시기는 5세기 후반 이후가 아닌가 한다. 탐라국이 활발한 대외관계를 전개하면서 백제, 신라, 고구려, 당, 왜에 사신 등을 파견한 기록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미 탐라는 일정한 자의식을 갖춘 집단으로 태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sup>4)</sup> 이런 의미에서 탐라라는 용어는 고대사회의 배타적인 집단적 정체성을 함축하는 용어이다.

한편 탐라 주민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탐라 공동체 내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分作五部落’의 기사에 주목할 필요성이 생긴다.

---

4) 물론 한라산을 축으로 산남, 산북, 동서지역의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제주섬의 경우 획일화해서 인식할 수 있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 제주섬의 주민 모두가 탐라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유대감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耽羅在新羅武州海上 … 其王姓儒李名都羅 無城隍 分作五部落 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 戶口有八千 … 無文記(『唐會要』)

分作五部落은 탐라사회 내부에서 계급적 차별이 일반화되면서 공동체 외부에 대한 집단적 정체성 보다는 공동체 내부에서 무리를 5개의 영역으로 가르는 분절적 의미를 띠는 것이다. 이것은 탐라사회의 부락들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공동체 외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이, 즉 공동체 내부의 관계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해서 탐라국과 分作五部落의 성립은 탐라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집단적 정체성에 기초한 동질적 '우리'이기도 하고, 집단적 정체성을 잃고 계급으로 갈라진 그들이기도 하는 이중적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 2. 고려왕조와 탐라주민

탐라국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의식을 가진 본격적인 집단임을 전제할 때 그들이 1천년 이상 문화적 전통을 유지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를 따로 부여해야 한다. 그것은 탐라주민 구성의 1차적 조건, 즉 공통의 조상, 언어, 영토, 생활습관 등의 외적 조건을 제공했고, 이것이 제주문화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라주민의 형성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외적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내적조건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탐라주민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탐라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내적 조건, 즉 '우리'라는 '의식'(consciousness)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적 자각은 모든 정체성이 그러하듯이 평소 느슨한 상태에 있다가 개인의 이해와 공동체적 이해가 동일시되는 계기를

맞아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탐라주민으로서의 자기정체성도 다른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심화되고 그들과 우리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급속히 강화된다. 그것은 전쟁이나 집단적 경쟁, 종교나 문화적인 이질성 등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한국역사에서도 이러한 시기는 있었다. 몽고와의 전쟁, 임란의 체험 등은 모두 전통적으로 조선인의 자기인식을 각인시킨 사건들이었다.

그렇다면 탐라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와 탐라사회의 이해를 같게 만든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탐라국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이 아닌가 싶다. 탐라국이 고려의 지방행정 단위인 ‘군’으로 편입되는 것은 1105년, 숙종 때이다. 이 과정은 기존의 탐라국이 한반도 문화권에 귀속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민족체<sup>5)</sup>의 역사발전에서 원심적 경향이 제어되고 민족체의 형성을 향한 구심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사적 의의가 있다. 사실 탐라주민은 이후 한민족체의 단일한 역사적 테두리 내에서 생활하고 그러한 경계가 큰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탐라주민이 고려왕조에 적극적인 귀속의지를 가졌을까? 당시 탐라주민이 한민족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려왕조에 의해 탐라국이 일개 지방으로 편입된 사건은 당시 주민들에게 어찌면 그들 정체성의 상실을 요구하는 중대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탐라주민의 對고려 의식은 생각처럼 간단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라는 의식은 정신적, 심리적인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공동체 질서의 부당한 침입자에 대한 저항은 지금까지 느슨하던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키며, 소속집단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

5) 전근대 시기에 존재했던 인간집단을 민족체 또는 준민족이라 한다.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통일신라기 고구려, 백제의 주민에 의한 부흥운동이나 몽고의 침입 때와 일제강점기 단군신화의 복원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탐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탐라국이 고려에 의해 일개 지방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당시 어떤 형태로든지 탐라주민의 저항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곧 탐라주민의 정신적 유대를 마련하는 매개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외부의 침략과 그에 대한 항쟁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공동운명체적 의식이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러한 저항의 한 형태가 탐라개국신화의 부활로 파악하는 전경수의 견해는 적절하다(전경수, 1992: 261-262). 특히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뚜렷한 자각이나 충성심은 그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화나 관습 등을 통해 사회화되면서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 탐라주민들은 그들의 개국신화를 통해 자신의 성장 여건을 마련해 준 사회와 자신을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우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고려시대 탐라개국신화의 부활, 삼별초군의 입성과 그에 따른 탐라주민의 반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생긴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서술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민족의식이 일반에게 보편화된 것임을 전제해 왔다. 탐라주민이 삼별초군과 더불어 몽고에 맞서 민족의 정통성과 독립을 지킨 애국항쟁의 주체였다는 평가가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고려의 봉건적 지배 체제 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민족의식을 발현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중앙의 지배계급과의 일체감을 느끼기에는 고려의 사회경제적 모순 또한 너무 컸다. 더욱이 탐라의 경우 고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독립된 정치체를 가졌던 탐라주민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한다면 고려는 피를 나눈 같은 형제이기보다는 침략자로 비취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점에서 탐라주민의 對고려 의식은 몽고나 왜와 마찬가지로 동지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될 따름이다.<sup>6)</sup> 전경수도 탐라개국신화의 부활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을 주장하면서 탐라주민의 태도가 여몽연합군의 편도, 그렇다고 삼별초의 편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탐라주민들의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탐라주민을 결속시키는 정신적 요소는 혈통, 언어, 풍습 등의 요소에 비해 장기지속적인 까닭에 조선왕조가 탐라주민을 동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복속화 정책에 의해 쉽게 대체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즉 당시 제주섬 주민들에게 있어서 ‘오백년 중사’라는 왕조적 이해와 ‘동토 수천리’, ‘삼천리 강토’라는 지역적 범주로서의 한반도에 대한 자의식이 침투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김광익, 1996: 10).

특히 17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2백년 동안의 출륙금지령으로 탐라주민의 삶은 외부와 단절된 채, 철저하게 제주섬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왕실의 혈연적 정통성을 통해 존속될 뿐 민중들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뚜렷한 권리의식이나 주체의식을 발전시키기 어려웠던 당시 제주섬 주민들의 집합적인 조선왕조의 백성이라는 동질의식은 매우 애매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조선왕조라는 실체도 인식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탐라주민들에게 국왕의 존재가 정치경제적인 후견인으로

---

6) 물론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측면에서 고려가 몽고에 비해 상대적 유대감이 높았을 것으로는 생각된다. 그렇다고 그러한 상대적 유대감이 일차적 고려의 대상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성찰이 배제된 현재적 당위론의 소산일 뿐이다.

각인되지 못하던 시기에 오히려 왕실강화를 명분으로 가중된 조세 수탈과 관리들의 사리추구로 인해 왕실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목에 파견된 지방관은 왕권의 대행자로서 권력의 현실적 주체였다. 당시 군현은 조선왕조의 핵심적 기능인 조세 및 부역의 부과 단위였고 수취단위였던 만큼 주민과 전체사회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였다. 이 과정에서 탐라주민들은 동일한 관의 억압과 수탈을 함께 받아야 하는 피지배층으로서의 동류의식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지주에 대한 수탈의 공통성이 매우 범위가 좁거나 분산적인데 비하여, 관의 부세수탈이나 관리들의 각종 불법적 탐학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통의 피지배층으로서의 의식을 매우 강하게 조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탐라 주민들의 경우 수눌음과 같은 노동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문화적 동질성도 지니고 각종 의례, 결혼과 출산에의 관행, 죽음과 축제 등과 더불어 행하는 사회적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하겠다. 그 결과 후일 제주사회가 한편으로 중앙정부에 편입된 신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제주인과 또 한편으로 제주섬의 특정 향촌에 머무는 제주인이라는 상반된 범주가 공존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 3. 한국인과 제주인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생활이 지속되던 제주섬에서 조선왕조의 신민이라는 자기인식은 비록 대내적으로 뚜렷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한반도 다른 지역보다 타자와의 접촉 경험이 미약하였고, 근대적인 의미에서 타자와 자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집합적 정체성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전통적인 정

체성이 근본적으로 재구성되면서 근대적인 성격이 강화된 시점은 언제쯤일까? 다시 말해서 제주섬 주민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해가 한국사회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이른바 제주인이 한국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할까? 이것은 참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다. 그러나 민족의식을 근대의 산물로 파악할 때<sup>7)</sup> 이는 19세기 말 이후의 시대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지식인층의 새로운 민족 정체성 논의가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생활상의 의식과 집단적인 정체성과의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선왕조의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국제관계의 측면에선 중국 중심의 중화체제에서 각국이 대등한 만국체제로 바뀌고, 문화적인 면에선 유교중심의 중세적 보편주의에서 한국 문화의 독자성이 중시되며,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해체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모색되며,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면서 국권의 수호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은 전근대 시기의 인간집단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역사적 성격을 띠는 실체로 다가서게 된다(노태돈, 1997: 168-169). 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주요 범주는 바로 국가라는 틀이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는 식민체제에 대항하여 지역적 경계와 신분적 경계를 넘어서 민족이라는 명제 앞에서 상호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 인식을 강화하였다. 즉 국권 상실은 민족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대안적으로 모색하게 만들었다.

---

7) 19세기 이후 세계사를 주도한 것이 서구의 국민국가(nation state)이다. 따라서 각 민족의 형성과정은 상이하더라도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근대의 산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제주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이곳은 한편에서 조선봉건왕조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드러나는 가운데 천주교를 비롯한 서양의 문물이 토착사회를 흔들었고, 또 한편에서 제국주의 체제에 노출되면서 일본인에 의한 어업 침탈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체제로의 재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은 가혹한 식민지적 수탈과 착취에 시달리게 되고, 이의 탈출을 위해 일본 등으로 나가 탄광이나 방직공장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살아가는 임노동자의 처지로 바뀌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최병걸 외, 1998: 123). 따라서 이 시기 제주인의 對일본 대응은 식민지 지배와 탄압을 벗어난 자유와 독립을 획득하려는 민족해방운동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1908년 의병거사계획, 1918년 법정사를 중심으로 한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1919년 조천만세시위운동, 1931~1932년 구좌면, 성산면 6개 마을 잡녀들에 의한 항일운동,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인 지식층 중심의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 등이 그 예이다(박찬식, 1999). 이런 점에서 일제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제주주민의 저항은 제주인=한국인으로 이어지는 민족적 일체감(national integrity)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여건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항일운동이 성, 노동, 계급 등 다양한 국면의 모든 억압을 자동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무리가 따른다. 항일 운동으로 환원되기에는 당시 사회의 현실의 모순 구조가 너무도 중층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교류가 차단된 채 고립, 분산적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제주인에게 아직도 촌락공동체가 생활과 관념의 중심으로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그들의 집단적 자의식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큰 단위를 염두에 두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을 혹은 촌락공동체에 강하게 쏠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8)</sup> 사실상 그들

에게 강한 민족적 자의식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교통, 통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사회적 교류가 확대되고 그 영향권에 들어선 후의 일이다. 따라서 20세기 초 산업화 이전의 제주인은 그들의 집단적 자의식이 향촌에 머무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민족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오히려 당시의 시대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왕조의 관리나 일본의 침략자 모두 그들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고 간섭하는 부당한 세력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주인의 형성시각에서 볼 때 그것이 중앙정부의 권력이든 제국주의 침략자이든 외부의 적에 대한 제주주민의 향촌 수호의식은 여전히 20세기 초의 역사적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9)

8) 고향을 뜻하는 *partia*가 중세 유럽의 민족적 담론 체계에서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향촌에 쏠려있는 농민들의 집단적 자의식을 입증한다.

9) 이런 의미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건은 우선 1901년 이재수 난이다. 이는 제주민중운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반제국, 반침략적 민중항쟁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당시 민군이 천주교 교민들을 범국놈, 범국년으로 간주 처형하고, 이재수가 洋人을 討滅하여 제주성을 회복하였다는 등의 사료를 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민군의 반천주교적 성향을 반침략적 민중항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박찬식의 지적은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박찬식, 1997: 43-44). 다만 당시 민군측이 일본인과 연결된 사실이 국제정세에 어두운 탓으로 돌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민군의 의식은 민족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향촌을 수호함에 있어서 일본인을 필요 내지는 전략의 대상으로 간주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제주인의 당시 의식이 국제정세에 어둡다는 평가와 향촌 질서의 수호를 중시하는 세계관에 머물러 있었다는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식은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관리나 일본세력, 또는 천주교 모두는 그들의 인식 차원에서 볼 때 향촌질서에 대한 부당한 간섭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일본에 대한 세화리 해녀항쟁은 민족의식에 기초한 민족항쟁을 제주항일운동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필자는 이 운동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입장이 못 된다. 다만 민족항쟁이라는 거대담론에서 간과되기 쉬운 향촌 혹은 농촌공동체의 수호투쟁이라는 성격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4. 제주도민과 제주인

한편 제주사회의 경우 향촌 중심의 특수성이 제주도 중심의 특수성으로 무계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것은 해방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 아닌가 한다. 이 무렵 전도적인 교통망의 형성,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 망의 구축 등 객관적 조건들이 조성되었다. 마을간 고립과 단절은 점차 활성화되는 물적 인적 교류 앞에서 서서히 무너졌으며, 제주문화의 객관적 기초이자 전통문화의 담지자인 농어촌 주민들이 제주시 지역으로 유입되어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도농간의 문화적 일체감도 강화되었다.

문제는 이들을 한 데 묶을 수 있는 호소력 있는 이념을 내세움으로써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때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목표를 정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에 대한 노력이 마련된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제주인, 제주문화, 제주정신과 같은 거대담론이다. 제주문화, 제주인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무렵 이들 용어의 수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용어의 수용으로 없던 현상이 새롭게 출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공동체의 성격을 새로운 개념적 틀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재구성된 제주인, 제주문화 등은 제주 근·현대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새삼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 와서 그들과 제주인을 구분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면 첫째, 1946년 도(道) 승격과 20세기 후반 민선자치의 출현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전라남도예 속해 있던 제주군은 1946년에 전라남도에서 분리, 본격적인 독립된 도 단위로 승격된다. 물론 도(道)

로의 승격 과정에서의 도민의 갈등, 지지 여부는 추후 자세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제주도, 1993: 66-68)<sup>10)</sup> 어쨌든 제주도 승격은 이후 제주인=제주도민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정치공동체에 속한다는 의식은 주민의 자기 위치 확인에 필수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치공동체에 속하는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규칙과 문화적 틀 속에서 살게 되는지가 상당부분 이로써 정해져 나가기 때문이다.

이 때 등장한 제주도 노래, 제주도 기(旗)와 각종 상징물은 제주인을 자각시키기 위한 결과물이다.<sup>11)</sup> 그것은 제주인을 역사적 실체로 대상화하기 위해 또한 관념적으로나마 ‘우리’라는 연대감으로 결속시켜 줄 이론적 무기가 필요하여 지연과 혈연 등에 기초한 자연감정의 발로인 애향심이나 원초적 집단감정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상징과 수사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덕목인 수눌음과 같은 상부상조의 미덕이 등장했다. 이를 통해 예로부터 제주 주민들은 서로가 더불어 공동체적 생활을 누려 왔었다는 사실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역사적으로 유구한 전통의 공동체가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것에 대한 가치가 새삼 중시되었다. 1970년대 이후 특히 제주의 전통문화와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제주도청 기관지인 『제주도』의 경우 특집을 통해 제주인의 전설, 신화, 의

10) 미군정이 제주도 승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파 진영의 지역유지의 건의와 행정적 측면의 검토 이외에 미군정 내부에서 정치적 문제로 고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1993)를 참조할 것.

11) 특히 도민의 통합을 정당화 시켜주는 이념정립이 요구될 때 제주인이라는 집단적 유대감이 적극적으로 표명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연감정의 원초적인 귀속의지를 넘어서 적극적인 집단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동기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식주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가령 “제주도 명물의 재발견”(1973), “제주도의 의, 식, 주”(1975), “제주도전통문화의 재정립”(1977), “제주인·제주도 정신”(1979)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관련하여 제주인이 지향해야 할 실천운동과 이념적 지표로서 ‘삼무정신’, ‘조낭정신’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전략으로 100만 제주인의 개념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관을 중심으로 제시된 바 있다(문정인, 1996: 11-17).<sup>12)</sup>

셋째, 지역공동체의 정신의 강조이다. 제주도가 전국적인 행정 체계의 작은 부분으로서 도와 관련된 사항이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 추진되던 과거와는 달리 20세기 후반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관광 산업에 있어서 다른 지역이 경쟁지역이 되면서 주민들이 가지는 경각심도 높아졌다. 이 의식은 제주주민들의 애향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제주는 천혜의 휴양지, 낙원 제주의 기치 아래 그 어느 지역과도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지방정부는 주민을 하나로 묶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민선

---

12) 오늘날 제주인들을 강하게 유지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가 제주인을 혈연공동체로 여기는 의식이다. 100만 제주인과 같은 개념도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속한다. 이 개념은 제주인을 핏줄과 언어, 관습으로 연결된 숙명적인 운명공동체로 파악하여 여기에 대한 자발적 헌신과 봉사를 유도한다. 물론 제주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을 통한 융합으로 구성원간에 높은 체질적인 동질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주인 사회가 형질적인 공통성을 지닌 혈연공동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이것은 제주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가 적응하거나 생존을 위한 자원으로써 만들어낸 것으로서 따라서 100만 제주인은 일종의 전략적인 형성물(strategic construct)일 수 있다.

자치가 시작되면서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제주인의 뿌리 찾기 작업과 아울러 제주의 지역 독자성을 확인하고 도민의 연대감을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대응한 지방화의 과제 개발의 논리와 맞물리면서 제주인과 그들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그 결과 제주인의 정체성을 학문적 과제로 삼아 논의가 시작했고, 최근 각종 세미나에서 제주인의 정체성 문제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세기 들어 나타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언어와 문화 등이 제주인 구성의 원초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밑바탕에는 제주인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유기적 통합체라는 가정이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제주인 정체성이나 소속감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선재(先在)하는 공동체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 제주인은 구체적인 개인들의 존재에 앞서 선재하는 공동체로서 개개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작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 III. 맺은말

지금까지 제주인은 현실이 아닌 당위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학은 당위로서의 제주인이 아니라 현실로서의 제주인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즉 제주인이란 개념은 현실에 대한 사유와 실천을 구성하고 만들어 내는 현실 규제력을 지닌 담론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식이나 감정의 차원이라면 논의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느낄 이유가 없다.

이 글은 '제주인'을 각 시기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공통의 생활양식과 귀속의식을 지닌 집단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객관적인 조건들이 달라짐에 따라 역사적으로 내용이 첨가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제주인의 개념에는 절대적이며, 항구불변의, 결정된 내용은 없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내용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제주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해 온 '사건(happening)과 같은 것이며, 그렇게 때문에 경험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역사적 내용을 가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주인은 스스로 제주인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제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었던 역사 단계에는 '제주인'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역사가들이 중요하게 해명해야 하는 것은 제주인 형성의 역사, 곧 사람들이 시간을 재료로 해서 제주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첫째, 제주인이란 하나의 감정이며, 제주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존재하는 정신상태(a condition of mind)란 점에서 공동체에 대한 긍지와 애착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새로운 상징을 동원하거나 이념적 구성물을 제시하면서 주민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각종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이른바 이데올로기로서의 제주인의 정체성, 제주정신의 강조가 그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의 강한 결속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이 같은 이데올로기화 작업은 '잠자는 미녀'로 있을 가능성보다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아웃사이드인 내게 우리의 조국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외친 버지니아 울프의 날카로운 반문은 한 집단의 정체성의 억압을 뚫고 나온 여성적 주체의 외침이다(West, 1997: xi) 이

것은 시공을 뛰어 넘어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주변화된 타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 제주인에 대한 버지니아 울프의 항변이기도 한 것이다. 21세기 제주인은 유기체적 성격을 벗어나 자기 자신을 타자로 인식하는 동시에 타자를 동등한 제주인, 즉 시민적 주체로 인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김광억, 1996, 「지방의 생산과 그 정치적 이용」, 『한국문화인류학』 29, 3-35.
- 노태돈, 1997, 「한국민족형성시기론」, 『한국사시민강좌』 20, 158-181.
- 문정인, 1996, 「100만 세계 제주인 공동체 형성방안」,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 제주의 세계화 학술대회 발표문』, 1-25.
- 박찬식, 1997, 「신축교안의 원인과 전개」, 『천주교 제주교구 선교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문』, 43-44.
- \_\_\_\_\_, 1999, 「되돌아 본 20세기, 제주 100년」, 『제주도정』.
- 이청규, 1995, 『제주도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 제주도, 1993, 『제주도지』 2, 66-68.
- 최병길 외, 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제주도연구』 15, 113-151.
- Eugene Kamenka ed., 1976, *Nationalism*, London.
- L.A. West, 1997, "Introduction: Feminism Constructs Nationalism," in L.A. West, *Feminist Nationalism*, New York.

Abstract

## Jejuian As the Historical Formations

Kim, Eun-Su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bout the historical configuration and change of the category of Jejuian. Who are the Jejuian? They are specific historical phenomena, not mere abstract expressions of the human spirit but movements and sentiments with specific social and historical content, deriving from specific social and historical conditions.

First of all, Jejuian is a practical category rather than a metaphysical one. Jeju people, for them, is a political and cultural unit, an aggregate of individuals able to participate in a common political and cultural life through their use of a common language and their physical propinquity to each other. Second, Jejuian have formed under specific geographical and social conditions; they have been scattered, mixed and reformed.

**Key Words:** Jejuian, Jeju Island, Identity, Tamna

---

\* Professor, Social Studie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 김은석 690-781 제주시 일주동로 6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E-mail: eskim@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2. 6. 29.

수정완료일 2012. 8. 13.

게재확정일 2012. 8. 17.